

2011학년도 한국항공대학교 수시 1차 심층면접 문제

영역 1

※ Read the following passages and answer the questions.

(A) Those who have handled science have been either men of experiment or men of dogmas. The men of experiment are like the ant; they only collect and use. The reasoners resemble spiders, who make cobwebs out of their own substance. But the bee takes a middle course; it gathers its material from flowers of the garden and the field, but transforms and digests it by a power of its own. Not unlike this is the true business of philosophy.

(B) Bacon was the prophet of the empirical tradition. Empiricism was not his word; nor would he have accepted its use as descriptive of his intellectual stand. For an empiric, in the language of his time, was almost a cheater rather than a learned man. But in the 19th century and our own time, the term empiricism acquired a new meaning. It designates a theory of knowledge opposed to the kind of rationalism advocated by Descartes. It is the position according to which human knowledge arises gradually in the course of ㉠ _____ through observation and experiment.

(C) Studies serve for delight, for ornament, and for ability. Their chief use for delight is in privateness and retiring; for ornament, is in discourse; and for ability, is in the judgement and disposition of business. ㉡ They perfect nature, and are perfected by experience, for natural abilities are like natural plants, and need pruning by study. Crafty men condemn studies, simple men admire them, and wise men use them, for they teach not their own use; but that is a wisdom without them, and above them, won by experiment.

1. COMPARE bee with ant and spider in the passage (A). (15점)

2. What is the point of argument in the passage (A)?

You need to answer by CONTRAST. (10점)

3. Read the passage (B) and trace the meaning of "empiric" from Bacon's age to our era. (10점)

4. Fill in the blank ㉠. It is a key word of empiricism.

You can find the word in the passage (C). (10점)

5. What does ㉡ They refer to? (5점)

2011학년도 한국항공대학교 수시 1차 심층면접 문제

영역 2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 차(此)로써 세계만방(世界萬邦)에 고(告)하여 인류평등(人類平等)의 대의(大義)를 극명(克明)하며 차(此)로써 자손만대(子孫萬代)에 고(告)하여 민족(民族) 자존(自存)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케 하노라.

<나> 나·랏 :말썽·미 中 辱國·국·에 달·아 文 文字·쥬·와·로서르 스뭇·디 아·니홀·씨·이런 전·차·로 어·린 百·빅姓·성·이 니르·고·저·홍·배이·셔·도 믈·춤 :내 제·쁘·들 시·러퍼·디 :몬홍·노·미 하·니·라

<다>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거슨 상하귀천이 다보게 흠이라 또 국문을 이러케 귀절을 췌여 쓴즉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말을 자세이 알아 보게 흠이라 각국에서는 사름들이 남녀 무론하고 본국 국문을 먼저 비화 능통한 후에야 외국 글을 비오는 법인디 조선서는 조선 국문은 아니 비오드리도 한문만 공부하는 까닭에 국문을 잘아는 사름이 드물미라

<라> 흥식이 거록하야 붉은 괴운이 하늘을 췌노더니 이랑이 소리를 높히 하야 나를 불러 저기 물밧 출 보라 웨거늘 급히 눈을 드러 보니 물밧 흥운을 헤얏고 큰 실오리긋흔 줄이 붉기 더욱 괴이흐며 괴운이 진홍긋흔 것이 촛촛 나 손바닥 너비 갓흔 것이 그믐밤의 보는 솟불밧긋더라.

<마>

산 전체가 요원(遼遠) 같은 화원(花園)이요, 벽공에 외연히 솟은 봉봉(峰峰)은 그대로가 활짝 피어 오른 한 떨기의 꽃송이다. 산은 때 아닌 때에 다시 한 번 봄을 맞아 백화난만(百花爛漫)한 것일까? 아니면 불의의 신화(神火)에 이 봉 저 봉이 송두리째 붉게 타고 있는 것일까? 진주홍(眞朱紅)을 함뻍 빨아들인 해면같이, 우러러볼수록 찬란하다.

(1) 위 글은 각각 독립된 글의 일절인 바, 이들 글이 발표된 순서대로 밝혀보시오.

(2) 위 글 <가>는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세계 만방에 천명한 선언문으로, 이 글은, (①)이 기초를 했고, 부칙의 공약 3장은 (②)이 기초를 했다. 이 선언문보다 한 달 먼저 일본의 동경에서도 발표된 ‘2.8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은 (③)이다. 위 ()에 적절한 사람 이름을 말하시오.

(3) 위 글 중 기행문 형식의 글을 모두 찾아내고, 각각 무엇에 대해 쓴 글인지 말해 보시오.

2. 다음 문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칠십 평생에 설움과 부끄러움과 애담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 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 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微賤)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貧賤)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富貴)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나> 옛날 일본에 갔던 박제상(朴堤上)이,
“내 차라리 계림(鷄林)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왜왕의 신하로 부귀를 누리지 않겠다.”
한 것이 그의 진정이었던 것을 나는 안다. 제상은 왜왕이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준다는 것을 물리치고 달게 죽음을 받았으니, 그것은
“차라리 내 나라의 귀신이 되리라.”
함이었다.

<다> 청소년이 말하는 태도에서 무엇보다 큰 특징의 하나는 버릇이 없고,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격식을 갖추려 하지 않는다. 그저 나오는 대로 말한다. 그리하여 반말을 예사로 쓰고, 비어나 욕설을 거침없이 내뱉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격식을 갖춘 말은 소원한 사이에서 쓰인다. 따라서, 친숙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반말을 쓰는 것이다. 비어나 욕설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손한 말투는 찾아보기 힘들다. 어른이 부르면 “왜요?” 하고 볼멘 표정이고, 말을 하면 “그게 아니고요.”라고 이유를 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같이 천방지축 날뛰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말버릇이다. 혹시 격식을 갖추어 높임말을 써야 할 경우에도 격식체인 ‘하십시오’체가 아닌,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즐겨 쓴다. 그리고 일인칭의 겸양어인 ‘저’를 쓰지 않는다. ‘나’를 쓴다. 이들은 높임법을 제대로 배워 익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써야 바로 쓰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그러기에 이들의 말버릇은 더욱 엉망이다.

- (1) 위 글 <가>에서 ‘미천한 자’라는 뜻을 가진 말(단어)을 찾고,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말을 글 <나>에서 찾으시오.
- (2) 위 글 <다>에서 청소년의 말하기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4어절로 된 문장을 찾으시오.
- (3) ‘격식을 갖춘 말’이 아닌 언어 습관의 구체적 여러 가지 예를 글 <다>에서 찾으시오.

3.
(1) 다음은 ‘아리랑 타령’의 일절이다. 이 노래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 둘을 말해 보시오.

문전의 옥토는 어찌 되고 / 쪽박의 신세가 웬 말인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배 띄워라 노다 가세.
밭은 헐려서 신작로 되고 / 집은 헐려서 정거장 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배 띄워라 노다 가세.

(2) 아래의 <가>, <나> 두 문장 중,

- ① 어법이 바르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어느 것인가를 찾아내고,
- ② 어법상 틀린 문장을 바르게 고쳐보시오.

<가> 아직도 그의 생생한 목소리가 나에 귓전에 울린다.

<나> 여러 악기의 독특한 음색이 조화를 이룰 때에 비로소 훌륭한 연주가 이루어진다.

(3)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의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 그 시골뜨기에게 양복을 입힌 것은 가게 기둥에 입춘격이다. >

- ① 개발에 편자, ② 거적문에 들찌귀, ③ 갓 쓰고 자전거 타기, ④ 끈 떨어진 뒤옹박

(4)

* ‘장본인’이나 ‘주인공’이란 말은, ‘어떤 일에서 중심이 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런데 이 둘은 쓰임새가 다르다. ‘10억대의 장학금을 익명으로 쾌척한 사람’은, ‘미담의 (①)’으로, ‘연쇄 살인 사건을 일으킨 사람’과 같이 주목을 받되,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로 말미암아 주목을 받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이는 말은 (②)이다.

* “그런데 이렇게 개탄스러운 정치인, 기업인, 지식인, 국민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오늘의 사회를 어지럽히고 희망의 미래를 가로막는 (③)들입니다.”.

위 글의 (①, ②, ③)에 적절한 단어로 채워 넣으시오.

(5) 다음 어휘 중 ‘나이’를 지칭하는 하지 않는 말을 모두 고르시오. 그리고 나이를 지칭하는 말들은 나이 적은 것에서 많은 순으로 말하시오.

지학(志學), 맹아(萌芽), 불혹(不惑), 이순(耳順), 백수(白手), 이립(而立), 약관(弱冠)